

보도시점 2025. 4. 23.(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5. 4. 22.(화)

물산업 진흥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 효과적인 물기업 지원·육성을 위해 ‘물산업진흥협의체’ 출범, 물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우리나라 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제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산업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진흥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고 관련 첫 회의를 4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환경부와 물산업 유관기관 8개*로 구성된 연계·협력 기구이며, △물산업 관련 실행전략 수립 및 환류체계 구축, △유사·중복 업무 발굴 및 조정, △기관 간 협업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산·수행되던 물기업 지원체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물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물산업협회, 한국물포럼, 한국상하수도협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반도체 산업,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용수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물관리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는 노후 상하수도 기반시설(인프라) 교체, 수자원 시설 확충, 첨단 신도시 개발 등 물관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전세계 물시장은 2024년 기준 1,465조 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고 2029년까지 연평균 3.56%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물기업 및 학계 등과 함께 진행한 물산업 포럼을 통해 국내 물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물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물산업 진흥 체계의 개선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내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물산업 지원체계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물기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 기관인 ‘물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4월 24일 열리는 협의체 회의에서는 △국제협력 분야의 실행전략 수립 논의, △물산업 유관기관 간 유사·중복 사업 기능 조정,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 간 연계·협력 방안, △물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협의체 출범을 통해 정부의 물기업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물기업의 세계 진출을 촉진하고, 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물산업진흥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안).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범직 (044-201-7631)
		담당자	사무관	최용준 (044-201-7642)

□ **배 경**

- 물산업 진흥을 위해 환경부-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 **개 요**

- (운영 기간) '25.4 ~

※ (회 의) 분기 1회 정기회의, 필요시 수시 회의

- (구 성) 환경부(물산업협력과), 물산업 유관기관(8개)으로 구성하고, 협의체 회의는 환경부가 주관

-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물산업협력과장, 물산업협력과 각 사무관

- (물산업 유관기관) 8개* 기관의 처장급 이상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 한국물포럼, 한국상하수도협회

- (역 할) ①물산업 진흥 및 해외 진출 관련 사항, ②물산업 기능별 전략 수립 및 환류 체계 구축, ③유관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발굴·조정·연계 등에 관한 사항 논의 등

□ **향후 일정**

- 25.4월 : 킥오프회의 개최, 이후 분기별 회의 개최